

# 말씀의 샘

##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 <잠언 16장 1~3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천지만물의 원 재료입니다.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았던 아담도 말로써 천지만물은 말로써 다스렸었습니다. 이 세상은 말로 만들어졌고, 말로 유지되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을 닮아, 말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교회생활의 성패도 모두 말에 달려있습니다. 신앙고백도 말로, 찬양도 말에 곡을 붙인 것이고, 설교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로써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아멘이라는 말로써 설교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은혜 받은 후의 생각과 결단, 소원을 말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눔과 교제의 모임도 말로써 나누는 것입니다. 전부 말입니다. 교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침체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비판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뱀이 에덴동산에서 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와한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동산에 시험이 들어온 것입니다. 에덴동산도 말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마귀가 뱀의 말을 사용한 것처럼 마귀는 말로 역사합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도 말로써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말을 마귀가 우리에게서 장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전부 말 때문에 깨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잘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의 경영을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잠 16: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의 구조상, 마음의 경영에서 왜 갑자기 말의 응답으로 건너뛰었을까요? 뭔가 댕구의 운을 굳이 논한다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음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갑자기 말로 건너뛰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그 마음에서 “한 단계 더 응답으로 가까이 발전된 단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말로써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마음에 멈춰서 머무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음의 경영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기도의 말, 선포의 말,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로 표현할 때 마음에만 머물렀던 경영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품은 뜻을 하나님께 말로써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기 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16:2부터는 “마음의 경영”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전혀 1절과 상관없는 독립적 구절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경영에 대한 부연구절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잠 16: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응답에 합당한 마음의 경영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보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나 불의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를 보십니다.

**마가복음 7: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야루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라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주님의 표현이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개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원망, 불평, 따지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주님을 더욱 인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7: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마음의 생각들, 더러운 마음, 미운 마음, 악독의 마음, 파괴적인 마음, 화가 나서 뒤집어 엮고 싶은 혈기의 마음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잘 다스렸고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서의 절제와 말의 표현을 칭찬하시며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때로는 한번 꼭 참고 하는 축복, 한번 꼭 참고 하는 용서, 한번 꼭 참고 하는 사랑의 표현, 한번 꼭 참고 하는 감사등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과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그토록 살피고 감찰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피셔서 마음의 경영이 발견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말기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경영은 바로 온전히 말기는 것입니다. 긴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경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지고 그것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그걸 말로써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 고백도 바뀌게 되고 그 고백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경영하는 것을 다 맡기면서, 말로 선포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온전히 말가지 못하는 마음에서 염려와 노파심과 불신앙이 나오며 그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뭔가 훨씬 새롭게 정리되어지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그때부터 조성되며, 그에 따른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4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9. 11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사사기 6장 11~16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고백의 변화와 새 은혜의 시작"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운행하심은  
**두란노 교회**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